

Interpersonal Problems and Variability of Individuals with Obsessive-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 Tendencies: Focusing on the Interpersonal Circumplex

Jieun Lee Jongmin Lim Mun-Seon Chang[†]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The core feature of Obsessive-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 (OCPD) is based on a desire for mental and interpersonal control, which leads to rigidity, stubbornness, and difficulties in maintaining an intimate relationship (APA, 2013).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prototypical interpersonal problems and behavioral and perceptual intraindividual variability in OCPD, based on the Interpersonal Circumplex (IPC; Leary, 1957). Participants ($N=226$) responded to PDQ-4+, KIIP-SC, behavioral response options, and an interpersonal grid with interpersonal scenarios. As OCPDs relate to others based on status and power, this study measured behavioral and perceptual intraindividual variability in relationships with friends and authority figures,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NPD) scores were controlled for, as previous studies have suggested that OCPD individuals reported similar interpersonal problems on the IPC with NPD individuals. The results showed that behavioral range and agency variability in individuals with OCPD tendencies decreased in relationships with authority figures compared to those with friends. Furthermore, their behavioral variability in agency decreased more when NPD scores were controlled for in relationships with authority figures, which suggests that OCPD is characterized by a rigid behavioral pattern when it comes to agency.

Keywords: obsessive-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 interpersonal circumplex, interpersonal problems, intraindividual variability

강박성 성격장애(Obsessive-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 OCPD)는 정신적 통제와 대인관계 통제 욕구로 인해 완벽주의를 과도하게 지향하고 세부사항과 규칙에 집착하는 성격장애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이 정의에 따르면, 강박성 성격장애가 과도한 완벽주의를 나타내고 세부사항과 규칙에 집착하는 이유는 정신적 통제 및 대인관계 통제 욕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강박성 성격장애에 관한 기존 연구는 강박장애(Eisen et al., 2006), 섭식장애(Halmi et al., 2005), 완벽주의와 성실성(Samuel & Widiger, 2011) 등 결과에 해당하는 변인에 주로 관심을 가졌

고, 이것의 원인으로 고려되는 정신적 통제나 대인관계 통제는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지지 않았다. 그나마 최근 성격장애에 관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대인관계 역기능이 성격장애의 핵심으로 주목받으면서(Skodol, Bender et al., 2011; Skodol, Clark et al., 2011) 강박성 성격장애의 대인관계 문제를 살펴본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이 연구들은 강박성 성격장애뿐만 아니라 여러 성격장애의 대인관계 문제를 함께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강박성 성격장애의 대인관계 문제에 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다루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강박성 성격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의 대인관계 문제를 구체적,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강박성 성격장애의 대인관계 문제는 임상적 관찰이나 이론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었다. 강박성 성격장애는 권위와 도덕에 복종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사회적 규준과 타인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자신과 타인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Benjamin, 1996).

[†]Correspondence to Mun-Seon Chang,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80 Daehak-ro, Buk-gu, Daegu, Korea; E-mail: moonsun@knu.ac.kr

Received Jan 21, 2020; Revised Jun 01, 2020; Accepted Jun 03, 2020

This paper is based on a part of the master's thesis of the first author.

또 이들은 기저에 자기 중심적인 특성과 사회적 규준에 반항하고자 하는 욕구가 잠재되어 있어(Millon & Grossman, 2005) 이를 감추기 위해 규범과 통제에 집착하지만, 지나친 통제로 인해 적대감을 경험하기도 한다(Millon, 1999; Villemarette-Pittman, Stanford, Greve, Houston, & Mathias, 2004). 강박성 성격장애는 적대감 표출을 사회적 규준에 부합하지 않고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행동으로 여기기 때문에 적대감 표출에 대해 끊임없이 양가갈등을 경험하며(Fenichel, 1945; Rosenwald, 1972), 이로 인해 더욱 경직된 대인관계 규칙을 따르고 대인관계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고 한다(APA, 2013). 특히, 권위와 규칙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순응하는 경직된 태도는 상대방이 지위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심화된다(Millon, Grossman, Millon, Meagher, & Ramnath, 2004).

이처럼 강박성 성격장애의 핵심 증상과 대인관계 역기능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볼 때, 강박성 성격장애의 대인관계 기능은 이들의 병리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다. 과거부터 여러 학자들(Benjamin, 1996; Carson, 1969; Hopwood, Wright, Ansell, & Pincus, 2013; Leary, 1957; Sullivan, 1953a, b)은 대인관계 역기능이 성격장애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학자인 Sullivan (1953b)은 성격을 ‘인간의 삶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반복적인 대인관계 상황의 패턴’이라고 정의하며, 성격과 대인관계를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Sullivan, 1953a, b). 또 대인관계 이론에서는 대인관계를 사람들 사이에서 실제로 일어난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정신적 표상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Lukowitsky & Pincus, 2011; Pincus & Ansell, 2012; Sullivan, 1953). 즉, 대인관계 이론은 개인이 혼자 있을 때조차 정신적 표상, 기억 등의 내적 과정을 통해 타인과 계속해서 상호작용한다고 보았다(Millon et al., 2004). 요약하면, 대인관계 이론에서는 성격병리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 내·외적으로 일어나는 대인관계 과정을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Leary, 1957; McLemore & Benjamin, 1979; Pincus & Wright, 2011).

DSM-5 (APA, 2013)의 성격장애에 대한 대안적 모델에서도 성격병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대인관계 기능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인관계 이론을 바탕으로 성격의 대인관계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대인관계 원형모델(Interpersonal Circumplex, IPC; Leary, 1957)을 살펴보고자 한다. IPC는 권위(Agency)와 친화(Communion)라는 두 직교차원으로 구성된 원형에 개인을 위치시키는 모델이다. 권위는 IPC의 Y축에 해당하며 권력, 지위, 통제, 지배와 관련된 특성을 나타내고, 친화는 X축에 해당하며 사랑, 친밀감, 친애, 소속감과 관련된 특성을 나타낸다(Wiggins, 1991). IPC에서 각도는 0°-360°의 범위에 해당하며, 0°는 친근하고 따뜻하며 친화적인 특성, 90°는 지배적이고 지시적이며 통제적인 특성, 180°는 냉담하고 적대적이며 친화적이지 않은 특성, 270°는 복종적이며 수동적이고 비지시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기존의 연구는 IPC를 통하여 대인관계 행동(Benjamin, 1974; Gifford, 1991), 문제(Alden, Wiggins, & Pincus, 1990), 민감성(Hopwood et al., 2011) 등을 측정해왔다. IPC를 Figure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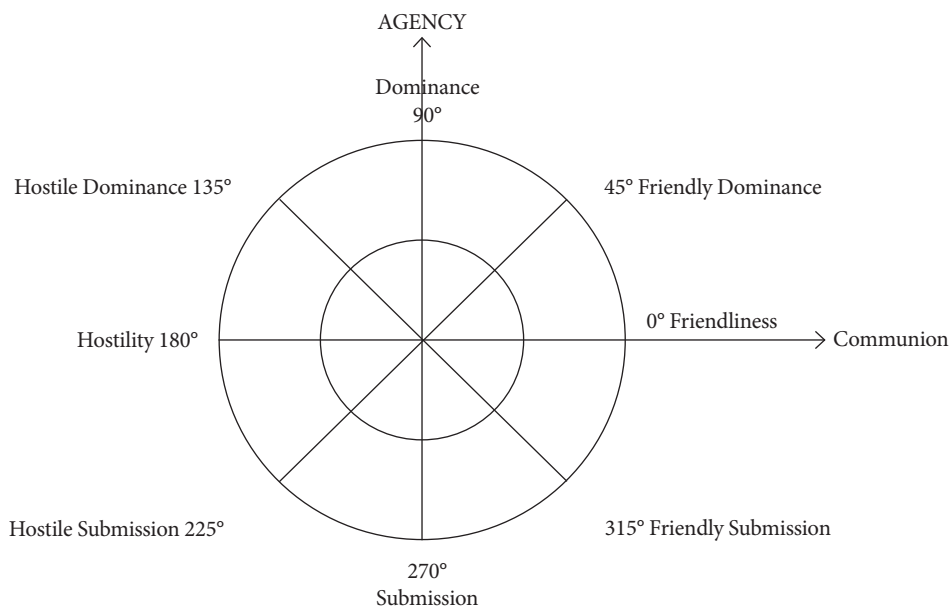


Figure 1. Interpersonal Circumplex (IPC).

IPC는 강박성 성격장애의 내·외적 대인관계 과정을 측정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 대인관계 이론은 권위 및 친화 특성을 성격을 구성하는 개념으로 가정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행동이나 특성을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간 상호작용과 개인 내 상호작용(내적 표상, 기억 등)에서 나타나는 대인관계 특성 또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Pincus & Hopwood, 2012). 강박성 성격장애가 권위를 바탕으로 대인관계를 맺으며 타인에게 전반적으로 적대감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권위, 친화를 구성개념으로 하는 IPC는 이들의 대인관계 양상을 측정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아울러, 성격장애에 대한 대안적 DSM-5 모델(APA, 2013)에서 설명하는 자기 기능과 대인관계 기능이 각각 권위, 친화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Bender, Morey, & Skodol, 2011; Pincus, 2011) IPC를 통해 강박성 성격장애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IPC를 활용한 기존의 연구는 강박성 성격장애가 경험하는 대인관계 문제만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또한 혼재하였다. Pincus와 Wiggins (1990), Wright 등(2012)의 연구에서는 강박성 성격장애가 IPC에서 특징적인 대인관계 프로파일을 보이지 않기에 개인 내에서 매우 복합적인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고 있거나 한 개인 내에서 특정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더라도 같은 강박성 성격장애 집단 내에서 서로 이질적인 문제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Cain (2011), Cain, Ansell, Simpson과 Pinto (2015)는 강박성 성격장애 집단이 IPC에서 적대적-지배적 행동 문제와 관련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혼재한 것은 연구 대상 및 측정도구의 비밀관성에 기인(Cain et al., 2015)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기존 연구는 강박성 성격장애가 대상의 권위에 따라 행동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간과하였다. 강박성 성격장애의 경직된 태도가 상대방이 지위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심화된다(Millon et al., 2004)는 점을 고려하면, 강박성 성격장애의 대인관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프로파일보다는 이들이 대인관계에서 나타내는 경직성을 파악해야 하며, 특히 지위나 권력을 지닌 대상(권위자)과 그렇지 않은 대상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각 대상과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경직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행연구는 강박성 성격장애 이외에 다른 성격장애 특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의 40%가 강박성 성격장애로도 진단될 만큼(Marissen, Deen, & Franken, 2012) 강박성 성격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감별이 필요하다(DSM-5; APA, 2013). 특히, 강박성 성격장애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대인관계 문제(Angular Displacement)는 IPC의 122.75° (Cain et al., 2015), 115.6° (Williams & Simms, 2016)로 지배(90°) 혹은 적대적 지배(135°)와 관련된 문제로 밝혀졌는데, 이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경험하는 대인관계 문제와 유사하다. 몇몇 학자들(Pincus & Hopwood, 2012; Pincus & Wiggins, 1990)은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지배 혹은 적대적 지배와 관련된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한다고 주장하였고, Williams와 Simms (2016)의 연구에서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Angular Displacement는 IPC의 115.7°로 나타나 강박성 성격장애와 동일하게 자기애성 성격장애도 주로 지배 혹은 적대적 지배와 관련된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강박성 성격장애와 함께 C군 성격장애로 분류되는 회피성 성격장애와 의존성 성격장애는 각각 Angular Displacement가 231.2°와 294.6°로 나타나 복종과 관련된 대인관계 문제를 주로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Williams & Simms, 201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강박성 성격장애의 대인관계 문제는 같은 성격 군집에 해당하는 회피성 및 의존성 성격장애보다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유사하기 때문에, 강박성 성격장애의 고유한 대인관계 문제와 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대인관계 내·외적 과정과 성격병리의 관련성을 이해함에 있어 개인내적 변동성(*intraindividual variability*)은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된다. 여러 성격이론에 따르면, 변동성은 적응과 관련 있으며 부적응적인 사람은 변동성이 너무 높거나, 낮거나, 맥락과 무관하여 곤란을 겪는다(Erickson, Newman, & Pincus, 2009). 이와 유사하게, Leary (1957)도 적응의 지표로 행동 강도가 적절한지, 행동이 경직되어 있지 않고 유연한지, 행동 및 지각이 적절하고 정확한지 등을 제안하였다. 이는 성격 기능 수준에 행동 및 지각의 변동성, 상황への 적절성 등이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IPC는 대인관계 과정상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데에도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Pincus와 Hopwood (2012)는 IPC에서 개인내적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소개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대인관계 역동(*interpersonal dynamics*)은 개인이 대인관계 상황에서 나타내는 성격 병리의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개인내적 변동성을 포함한다. 이를 볼 때, IPC를 활용하여 강박성 성격장애의 대인관계 양상을 파악하면, 이들의 대인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행동 및 지각을 아우르는 대인관계 과정의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은 통제집단보다 IPC에서 대인관계 문제를 더 많이 보고할 것이다. 둘째,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은 IPC에서 적대적-지배적 문제를 보고할 것이다. 셋째,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행동 및 지각 변동성이 통제집단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넷째,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은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행동 및 지각 변동성이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을 것이다.

방 법

연구 참가자

본 연구는 경북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No. 2019-0072)의 승인을 받고 진행되었다. 연구 참가자는 대학생 226명(남성 72명, 여성 154명)으로, 연령은 만 21.26 ($SD=2.12$)세였다. 본 연구에서는 PDQ-4+ 강박성 성격장애 점수를 기준으로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을 선별하였다. PDQ-4+는 DSM-IV 성격장애 진단기준을 토대로 개발되었고(Kim, Choi, & Cho, 2000), DSM-IV와 DSM-5에서는 강박성 성격장애 진단기준 중 4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 강박성 성격장애로 진단한다(APA, 1994, 2013).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PDQ-4+ 강박성 성격장애 점수 4점과 5점이 각각 Z점수 0.74, 1.4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5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n=32$)을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이 PDQ-4+에서 높은 수준의 강박성 성격장애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PDQ-4+는 성격장애 진단보다는 성격장애 특성을 측정하는 데 보다 적합하다(Hunt & Andrews, 1992). 또 이들의 강박성 성격장애 특성은 자기보고식 질문으로만 평가한 것일 뿐, 이들이 임상심리전문가 혹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면담을 통해 강박성 성격장애로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자기보고식 척도는 여러 대상에게 동시에 실시할 수 있고 검사의 시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검자의 거짓 보고나 반응 왜곡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보고식 척도로만 집단을 선정할 경우에는 집단 구분의 정확도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PDQ-4+ 강박성 성격장애 점수가 5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박성 성격장애 집단’이 아닌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으로 명명하였다. 통제집단은 PDQ-4+ 강박성 성격장애 점수가 0점과 1점에 해당하는 사람($n=33$)으로 선정하였다.

측정 도구

질문지

한국판 성격장애 검사(Personality Disorder Questionnaire-4+, PDQ-4+)

PDQ-4+는 Hyler (1994)가 12개의 성격장애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다. 본 연구에서는 Kim 등(2000)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이 중에서 강박성 성격장애 8문항과 자기애성 성격장애 9문항만 활용하였다. PDQ-4+는 성격장애를 측정하는 문항에 “예/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며, “예”라고 응답한 문항이 많을수록 해당 성격장애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PDQ-4+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Kim 등(2000)의 연구에서 강박

성 성격장애 .44, 자기애성 성격장애 .4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강박성 성격장애 .34, 자기애성 성격장애 .48로 나타났다.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단축형(Short form of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s; KIIP-SC)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는 Alden 등(1990)이 대인관계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국내에서는 Kim과 Hong (1999)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ong, Park, Kim, Kwon, Cho와 Kim (2002)이 개발한 단축형(KIIP-SC)을 사용하였다. KIIP-SC는 통제지배(PA), 자기중심성(BC), 냉담(DE), 사회적 억제(FG), 비주장성(HI), 과순응성(JK), 자기희생(LM), 과관여(NO) 등의 8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인 별 5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KIIP-SC는 각 문항의 대인관계 문제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Likert 척도에 반응하도록 한다. KIIP-SC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Hong 등(2002)의 연구에서 .61-.8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71-.89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시나리오(Interpersonal Scenarios)와 행동 반응선택지: 행동 변동성 측정

대인관계 시나리오는 Erickson 등(2009)이 대인관계 교류 질문지 개정판(Checklist of Interpersonal Transactions-Revised, Kiesler, 1987)의 문항을 결합하거나 축약하여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대인관계 시나리오에서는 IPC 8분원에 해당하는 타인의 행동이 두 가지 강도(경도-중등도 vs. 심도)로 제시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양상이 대상에 따라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대인관계 시나리오를 행동의 주체가 친구인 경우와 권위자인 경우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즉, 대인관계 시나리오는 행동 유형(8) × 행동 강도(2) × 행동 주체(2)의 총 32가지 상황으로 제시되었다. 행동 반응선택지는 Erickson 등(2009)이 대인관계 교류 질문지 개정판(Kiesler, 1987)과 대인관계 원형 행동(Interpersonal Circle-Acts Version, Kiesler, 1985)을 토대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행동 반응선택지에는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16가지 행동(행동 유형[8] × 행동 강도[2])이 제시되며, 참가자는 32가지 대인관계 시나리오 각각에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한다. 행동 반응선택지에 있는 모든 반응은 IPC 좌표로 변환될 수 있는데, 행동 강도가 경도-중등도에 해당하는 반응은 반지름이 1인 IPC 좌표로 변환되고, 심도에 해당하는 반응은 반지름이 2인 IPC 좌표로 변환된다. 예를 들어, 경도-중등도의 지배적인 행동은 좌표가 $[0,1]$ 에 해당하고, 심도의 우호적-복종적 행동은 좌표가 $[\sqrt{2}, -\sqrt{2}]$

에 해당한다. 대인관계 시나리오와 행동 반응선택지는 Erickson 등 (2009)이 개발한 것을 연구자가 한국어로 1차 번안하고, 임상심리 전문가 2인에게 자문을 받아 수정하였다. 이후 대학원생 14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한 후 피드백을 바탕으로 내용이 보다 잘 전달되도록 수정하였다.

대인관계 격자(Interpersonal Grid): 지각 변동성 측정

대인관계 격자는 타인의 행동을 지각하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Moskowitz와 Zuroff (2005)가 개발한 도구로 IPC에 바탕을 두고 있다. 격자는 9×9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X축(친화 차원)과 Y축(권위 차원)의 좌표는 -4에서 4로 이루어져 있다. Y축의 상단은 지배적 행동, 하단은 복종적 행동을 묘사하고, X축의 우측은 온화한 행동, 좌측은 냉담한 행동을 묘사한다. 격자의 가장자리마다 행동을 묘사하는 형용사를 제시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격자의 중앙으로 갈수록 타인의 행동 특성(지배, 복종, 온화, 냉담)을 중립적으로 지각하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타인의 행동 특성을 강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시나리오를 제시한 뒤에 각 시나리오에서 타인의 행동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묘사할 것인지) 격자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절차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PDQ-4+ 점수를 토대로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과 통제집단을 선정하여 연구실에 방문하도록 하였다. 참가자가 실험실에 방문하면 연구에 관한 안내를 실시하고, KIIP-SC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후 참가자에게 대인관계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친구 또는 권위자가 시나리오에 묘사된 행동을 자신에게 행하고 있음을 상상하도록 하였다. 참가자는 친구 또는 권위자의 행동에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행동 반응선택지에서 선택하고, 이들의 행동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대인관계 격자에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참가자는 모든 대인관계 시나리오에 응답하였다.

분석 방법

원형 통계치(Circular Statistics)

원형 통계치와 구조적 요약법은 KIIP-SC 하위요인 점수를 Z점수로 환산한 후 Wright, Pincus, Conroy와 Hilsenroth(2009)가 제안한 공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원형 평균(Circular Mean; θ_M)은 IPC 각도의 평균으로 개인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대인관계 문제 유형을 나타내며, $\theta_M = \tan^{-1} \left(\frac{Y}{X} \right) \times \frac{180}{\pi}$ 식을 통해 산출한다. 여기서 X, Y는 다음과 같다. $X = \sum (\cos \theta_i)$, $Y = \sum (\sin \theta_i)$. 원형 변량(Circular Variance; V_θ)은 IPC 각도의 변량으로 개인이 경험하는 대인관계 문제

유형의 범위를 나타내며, $V_\theta = \cos^{-1} \left(\frac{\sum \cos(\theta_M - \theta_i)}{n} \right) \times \frac{180}{\pi}$ 식을 통해 산출한다. 원형 평균과 원형 변량을 통해 원형 평균의 95% 신뢰구간을 산출할 수 있으며, $95\% \text{ CI} = \theta_M \pm 1.96 \times \frac{V_\theta}{\sqrt{n}}$ 식을 통해 산출한다.

구조적 요약법(Structural Summary Method)

Elevation (e)은 집단이 경험하는 대인관계 문제의 전반적인 심각도를 나타내며, 모든 집단 구성원이 IPC의 여덟 가지 영역에서 얻은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Amplitude (a)는 한 집단의 대인관계 프로파일이 다른 집단과 변별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는 개념적으로 벡터 길이와 동일한 개념으로 $a = \sqrt{X^2 + Y^2}$ 식을 통해 산출한다. Angular Displacement (δ)는 대인관계 프로파일에서 최고치를 얻은 지표의 각도를 의미하며, $\delta = \tan^{-1} \left(\frac{Y}{X} \right) \times \frac{180}{\pi}$ 식을 통해 산출한다. 위의 두 수식에서 X, Y는 다음과 같다. $X = c \times \sum (S_i \times \cos \theta_i)$, $Y = c \times \sum (S_i \times \sin \theta_i)$. 여기서 c는 (2/IPC 척도의 개수)로, 본 연구에서는 $2/8 = 0.25$ 다. S_i 는 i번째 IPC 척도에서의 점수를 의미하며 θ_i 는 i번째 IPC 척도의 각도 값이다. 적합도(goodness-of-fit; R^2)는 한 집단의 대인관계 프로파일이 얼마나 구조적 요약법의 수치들로 예측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Sin 그래프와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적합도가 높을수록 IPC에서 특정한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적합도가 낮을수록 집단이 경험하는 대인관계 문제를 특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80 이상의 값은 좋은 합치도로 간주되며, .70 미만의 값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Gurtman & Pincus, 2003). 이해를 돕기 위해 Supplementary material 1에 대인관계 프로파일 예시와 이에 따른 구조적 요약법 수치를 함께 제시하였다.

행동 및 지각 변동성: Flux, Spin, Pulse

Flux는 행동 및 지각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X축(친화 차원)과 Y축(권위 차원) 점수의 표준편차로 계산한다. 즉, 각각의 대인관계 시나리오에서 개인이 선택한 반응을 IPC 좌표로 환산하여 X좌표 값들의 표준편차와 Y좌표 값들의 표준편차를 산출하면, 친화 차원의 Flux와 권위 차원의 Flux가 된다. Flux는 점수가 높을수록 친화 또는 권위 차원에서 변동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Spin은 '각 좌표(angular coordinate)'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원형 표준편차(circular standard deviation)로 계산한다. 즉, 각각의 대인관계 시나리오에서 환산된 IPC 좌표를 토대로 Mardia (1972)가 제안한 공식($\theta_i = \tan^{-1} (Y/X) \times \frac{180}{\pi}$)에 따라 각도 값을 산출하고, 모든 각도 값의 표준편차를 구하면 Spin이 된다. 예를 들어, 행동 반응선택지에서 경도-중등도의 우호적-지배적 행동은 좌표가 $[\sqrt{0.5}, \sqrt{0.5}]$ 에 해당하고, 각도는 $\tan^{-1} (\sqrt{0.5}/\sqrt{0.5}) \times \frac{180}{\pi} = 45^\circ$

로 산출된다. 또 타인의 행동을 대인관계 격자의 [2,4]에 해당하는 모습으로 지각했다면, 각도는 $\tan^{-1}(4/2) \times \frac{180}{\pi} = 63.43^\circ$ 로 산출된다. 이렇게 산출된 각도를 통하여 모든 각도 값의 분산인 원형 변량(S_0)과 원형 표준편차(Spin)를 산출하면 되고, 수식은 다음과 같다. $S_0 = 1 - [(\sum_{i=1}^n \cos \theta_i)^2 + (\sum_{i=1}^n \sin \theta_i)^2]^{1/2} / n$, $\text{Spin} = [-2 \log_e(1 - S_0)]^{1/2}$. Spin은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 또는 지각 레퍼토리의 범위가 넓음을 의미한다(Pincus & Hopwood, 2012).

Pulse는 행동 및 지각하는 강도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IPC에서 원점([0,0])으로부터의 길이의 표준편차로 계산한다. 즉, 각각의 대인관계 시나리오에서 환산된 IPC 좌표와 원점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모든 거리의 표준편차를 산출하면 Pulse가 된다. Pulse는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 또는 지각하는 강도의 변동성이 높음을 의미한다(Pincus & Hopwood, 2012). 예를 들어, 행동의 평균 강도가 높지만 Pulse가 낮다면 대인관계에서 강도가 높은 행동을 꾸준히 나타냄을 의미한다(Pincus & Hopwood, 2012).

결 과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측정 변인 비교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과 통제집단이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측정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은 성별, $\chi^2(1, N=65) = .01, ns$, 연령, $t(63) = -1.52, ns$, KIIP-SC의 냉담(DE), $t(63) = 1.67, ns$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PDQ-4+의 OCPD, $t(63) = 40.16, p < .001$ 와 NPD, $t(63) = 5.49, p < .001$, KIIP-SC의 통제지배(PA), $t(63) = 2.97, p < .01$, 자기중심성(BC), $t(63) = 2.55, p < .05$, 사회적 억제(FG), $t(63) = 3.33, p < .01$, 비주장성(HI), $t(63) = 4.20, p < .001$, 과순응성(JK), $t(63) = 2.82, p < .01$, 자기희생(LM), $t(63) = 4.81, p < .001$, 과관여(NO), $t(63) = 4.80, p < .001$ 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각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측정 변인의 기술통계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other variables of participants

Variables		OCPD Tendency group (<i>n</i> = 32)		Control group (<i>n</i> = 33)	
		Friend	Authority	Friend	Authority
		<i>M (SD)</i>		<i>M (SD)</i>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x (Male:Female)	11:21		11:22	
	Age	21.25 (1.72)		21.88 (1.62)	
PDQ-4+	OCPD	5.16 (.45)		.76 (.44)	
	NPD	2.94 (1.68)		1.06 (1.00)	
KIIP-SC (Z score)	PA	.31 (.98)		-.37 (.88)	
	BC	.47 (1.15)		-.24 (1.10)	
	DE	.13 (.89)		-.26 (.97)	
	FG	.49 (.90)		-.29 (.99)	
	HI	.56 (1.03)		-.44 (.88)	
	JK	.42 (.91)		-.25 (1.00)	
	LM	.42 (.78)		-.50 (.77)	
	NO	.55 (.83)		-.34 (.67)	
Behavior	Communion Flux	1.10 (.16)	1.10 (.23)	1.13 (.14)	1.15 (.18)
	Agency Flux	.96 (.15)	.96 (.20)	.97 (.13)	1.00 (.17)
	Spin	1.70 (.44)	1.47 (.36)	1.71 (.36)	1.65 (.40)
	Pulse	.49 (.04)	.48 (.05)	.49 (.03)	.50 (.02)
Perception	Communion Flux	2.91 (.53)	2.69 (.65)	2.94 (.50)	2.91 (.49)
	Agency Flux	2.63 (.46)	2.54 (.53)	2.78 (.47)	2.55 (.52)
	Spin	1.94 (.42)	1.77 (.45)	2.02 (.37)	1.85 (.38)
	Pulse	.88 (.21)	.87 (.22)	.92 (.25)	.98 (.32)

Note. PDQ-4+ = Personality Disorder Questionnaire-4+; OCPD = Obsessive 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 NPD =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KIIP-SC = Short form of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s; PA = Domineering; BC = Self-Serving/Vindictive; DE = Coldhearted; FG = Avoidant; HI = Nonassertive; JK = Exploitable; LM = Overly Nurturant; NO = Intrusive.

*** $p < .001$,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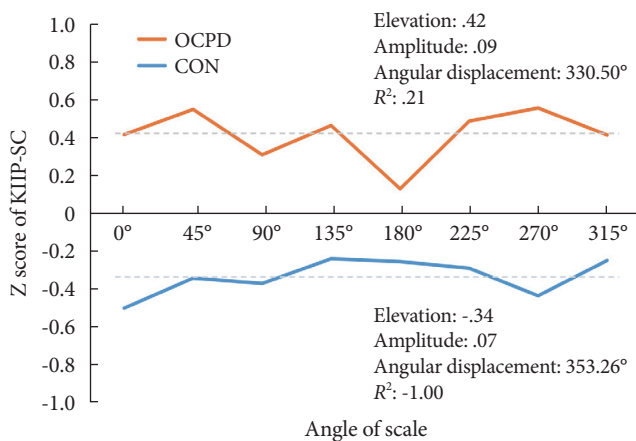


Figure 2. Interpersonal Profiles on the KIIP-SC.

대인관계 문제에서 두 집단 간 비교

강박성 성격장애에 경향군과 통제집단이 주로 경험하는 대인관계 문제와 심각도를 파악하기 위해 원형 통계치와 구조적 요약법 수치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강박성 성격장애에 경향군은 평균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며(Elevation, .42), 이 중에서도 IPC의 330.50°에 해당하는 대인관계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만(Angular Displacement) 이 영역에서의 심각도는 대인관계 문제에서 평균적으로 경험하는 심각도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은 아니었다(Amplitude .09). 통제집단은 평균적으로 대인관계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며(Elevation, -.34), 개인내적으로는 IPC의 353.26°에 해당하는 대인관계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만(Angular Displacement) 이 영역에서의 심각도는 대인관계 문제에서 평균적으로 경험하는 심각도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은 아니었다(Amplitude .07). 또 두 집단의 대인관계 문제 양상은 뚜렷한 독특성을 보이지 않아 이들이 경험하는 대인관계 문제를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2 .70 미만). 두 집단의 대인관계 프로파일과 구조적 요약법 수치를 Figure 2에 제시하였다.

행동 및 지각 변동성에서의 반복측정 공분산분석

대상에 따른 집단 간 행동 및 지각 변동성을 비교하기 위해 Flux, Spin, Pulse에 대한 반복측정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참가자 간 변인은 집단(강박성 성격장애에 경향군과 통제집단), 참가자 내 변인은 대상(친구와 권위자)으로 설정하였다. 또 선행연구에서 강박성 성격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유사한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고(Williams & Simms, 2016), 본 연구에서도 강

박성 성격장애에 경향군과 통제집단이 PDQ-4+의 OCPD와 NPD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전체 자료($n=226$)에서 PDQ-4+의 OCPD와 NPD의 상관이 $r=.40$, $p<.001$ 로 나타났기 때문에, PDQ-4+의 NPD를 공변량으로 투입하여 자기애성 성격장애 특성이 집단 간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Flux, Spin, Pulse에 대한 2×2 반복측정 공분산분석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행동 변동성에 대한 반복측정 공분산분석

개인 내 행동 변동성을 측정하는 Flux, Spin, Pulse에 대한 반복측정 공분산분석 결과, 대상의 주효과는 권위 Flux¹⁾, $F(1, 62)=6.65$, $p<.05$ 와 Spin, $F(1, 62)=14.53$,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집단의 주효과는 모든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상호작용효과는 권위 Flux, $F(1, 62)=6.63$, $p<.05$ 와 Spin, $F(1, 62)=8.64$, $p<.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을 기준으로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권위 Flux, $F(1, 62)=.00$, ns 와 Spin, $F(1, 62)=.67$, ns 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공변량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강박성 성격장애에 경향군과 통제집단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권위 차원의 행동 변동성과 전반적인 행동 레퍼토리의 다양성이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반면, 권위자와의 관계에서는 권위 Flux, $F(1, 62)=6.48$, $p<.05$ 와 Spin, $F(1, 62)=6.15$, $p<.05$ 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공변량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권위 Flux, $F(1, 63)=.85$, ns , Spin, $F(1, 63)=3.61$, ns). 즉,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강박성 성격장애에 경향군의 권위 Flux와 Spin의 추정된 평균 점수는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았지만, PDQ-4+의 NPD 점수를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강박성 성격장애에 경향군이 통제집단에 비해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보다 일관되고 경직된 지배 혹은 복종 행동을 보이고 전반적인 행동 레퍼토리의 다양성도 부족하지만, 자기애성 성격장애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박성 성격장애에 경향군의 권위 차원의 행동 변동성과 전반적인 행동 레퍼토리의 다양성이 통제집단과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권위 Flux 및 Spin에 대한 집단과 대상의 상호작용효과를 각각 Figure 3과 Figure 4에 제시하였다.

집단을 기준으로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강박성 성격장애에 경향군은 권위 Flux, $F(1, 30)=8.80$, $p<.01$ 와 Spin, $F(1,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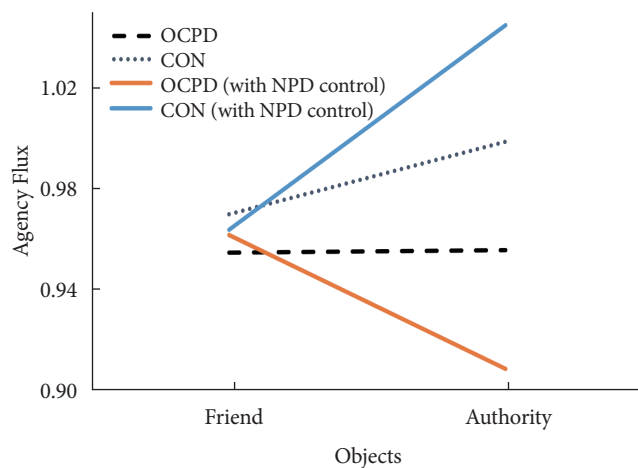
1) 권위 Flux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주효과 분석을 위한 대응별 비교에서 대상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p=.51$, 논의에서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Table 2. Repeated ANCOVA for behavioral and perceptual intraindividual vari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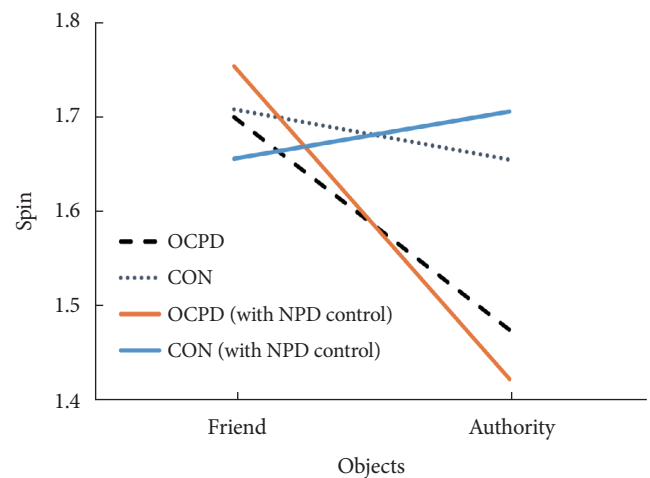
	DV	IV	SS	df	MS	F	partial η^2
Behavioral Intraindividual Variability	Communion Flux	A	0.02	1	0.02	0.83	0.01
		B	0.03	1	0.03	0.56	0.01
		A*B	0	1	0	0.13	0
	Agency Flux	A	0.1	1	0.1	6.65*	0.1
		B	0.1	1	0.1	2.9	0.05
		A*B	0.1	1	0.1	6.63*	0.1
	Spin	A	1.34	1	1.34	14.53**	0.19
		B	0.19	1	0.19	0.9	0.01
		A*B	0.8	1	0.8	8.64*	0.12
	Pulse	A	0	1	0	0.85	0.01
		B	0	1	0	2.16	0.03
		A*B	0	1	0	1.42	0.02
Perceptual Intraindividual Variability	Communion Flux	A	0.3	1	0.3	4.35*	0.07
		B	1.43	1	1.43	2.78	0.04
		A*B	0.31	1	0.31	4.48*	0.07
	Agency Flux	A	0.06	1	0.06	0.71	0.01
		B	0.32	1	0.32	0.77	0.01
		A*B	0.27	1	0.27	3.3	0.05
	Spin	A	0.14	1	0.14	1.24	0.02
		B	0.07	1	0.07	0.3	0.01
		A*B	0.01	1	0.01	0.11	0
	Pulse	A	0.02	1	0.02	0.62	0.01
		B	0.13	1	0.13	1.37	0.02
		A*B	0.01	1	0.01	0.37	0.01
Error				62			

Note. DV = Dependent variable; IV = Independent variable; A = Object; B = Group.

** $p < .01$, * $p < .05$

**Figure 3.** Interaction effect of group and objects on Agency Flux.

13.30, $p < .001$ 에서 대상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공변량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권위 Flux, $F(1, 31) = .00$, ns , Spin, $F(1, 31) = 6.65$, $p < .05$). 즉,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은 친구보다 권

**Figure 4.** Interaction effect of group and objects on Spin.

위자와의 관계에서 권위 Flux와 Spin의 추정된 평균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지만, PDQ-4+의 NPD 점수를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권위 Flux에서 대상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이 상대방에게 지배적으로만 행동하거나 혹은 복종적으로만 행동하는 경직된 경향이 친구보다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지만, 자기애성 성격장애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위자와의 관계에서도 친구와의 관계만큼 권위 차원의 행동 변동성이 유지됨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은 친구보다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행동 레퍼토리의 다양성이 더 부족하며, 이런 현상은 자기애성 성격장애 특성의 영향과 관련 없이 동일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반면, 통제집단은 권위 Flux, $F(1, 31) = .32, ns$ 와 Spin, $F(1, 31) = 1.48, ns$ 에서 대상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공변량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통제집단은 대인관계 대상이 변하더라도 권위 차원의 행동 변동성과 전반적인 행동 레퍼토리의 다양성이 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지각 변동성에 대한 반복측정 공분산분석

개인 내 지각 변동성을 측정하는 Flux, Spin, Pulse에 대한 반복측정 공분산분석 결과, 대상의 주효과는 친화 Flux, $F(1, 62) = 4.35,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집단의 주효과는 모든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상호작용효과는 친화 Flux, $F(1, 62) = 4.48,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을 기준으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친화 Flux, $F(1, 62) = .79, ns$ 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공변량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과 통제집단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친화 차원의 지각 변동성이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반면, 권위자와의 관계에서는 친화 Flux, $F(1, 62) = 4.78, p < .05$ 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공변량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친화 Flux, $F(1, 63) = 2.41, ns$). 즉,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의 친화 Flux의 추정된 평균 점수는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았지만, PDQ-4+의 NPQ 점수를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이 권위자의 행동을 친화적으로만 지각하거나 혹은 적대적으로만 지각하는 경직된 경향이 통제집단보다 더 심하지만, 자기애성 성격장애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경향이 통제집단과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집단을 기준으로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은 친화 Flux, $F(1, 30) = 5.88, p < .05$ 에서 대상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공변량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친화 Flux, $F(1, 31) = 13.93, p < .01$). 즉,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은

친구보다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친화 Flux의 추정된 평균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고, 공변량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이 상대방의 행동을 친화적으로만 지각하거나 혹은 적대적으로만 지각하는 경직된 경향이 친구보다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더 심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반면, 통제집단은 친화 Flux, $F(1, 31) = .14, ns$ 에서 대상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공변량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통제집단은 대인관계 대상이 변하더라도 친화 차원의 지각 변동성이 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강박성 성격장애가 경험하는 대인관계 문제와 행동 및 사회적 지각에서의 변동성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요약법을 통해 두 집단의 대인관계 문제를 비교한 결과,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은 전반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levation). 이들은 특히 IPC의 330.50°에 해당하는 대인관계 문제가 가장 심각하였는데(Angular Displacement), 이 영역에서의 심각도는 대인관계 문제에서 평균적으로 경험하는 심각도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은 아니었다(Amplitude). 즉, Figure 2에 제시된 대인관계 프로파일에서 볼 수 있듯이,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은 특정한 대인관계 문제에서 심각도가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인관계 문제에서 유사한 정도의 심각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박성 성격장애의 Elevation이 .10 이상이면서 Amplitude는 .10 미만으로 나타난 선행연구(Williams & Simms, 2016; Zimmermann & Wright, 2017)와 일치하는 결과다. 또 본 연구에서는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의 대인관계 프로파일 적합도(R^2)가 .21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선행연구(.12, Zimmermann & Wright, 2017)와 유사한 결과로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이 경험하는 대인관계 문제를 특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는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이 전형적인 대인관계 문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Salzer et al., 2008) 복잡한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Gurtman & Blakrishnan, 1998)함을 시사한다. 강박성 성격장애는 특정한 대인관계 문제보다는 복합적인 대인관계 문제를 보이며, 특정한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는 강박성 성격장애 환자가 있더라도 환자마다 경험하는 대인관계 문제는 이질적(Pincus & Wiggins, 1990; Wright et al., 2012)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성격 이론가들 또한 강박성 성격장애의 대인관계 양상을 양가성으로 설명했다. Leary(1957)는 강박성 성격장애

애가 수동적이고 자기-비판적인 강박사고형(Obsessiveness)과 이와는 대조되는 대인관계에서 요구적이고 우월감을 드러내는 강박 행동형(Compulsion)을 아우르는 용어라고 주장했다. McWilliams (2011)는 강박성 성격장애 환자는 개인별로 대인관계 양상이 다를 수 있고, 개인 내에서도 양가적인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다. Millon (1999)은 강박성 성격장애를 대인관계 양가성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여러 대인관계 양식을 번갈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또 Millon (1969, 1981)은 강박성 성격장애가 복종, 의존, 자율성을 끊임없이 반복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강박성 성격장애가 양가적이고 복합적인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는 특성이 본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통제집단은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과 달리 전반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Elevation). 이들은 개인 내적으로는 IPC의 353.26°에 해당하는 대인관계 문제가 가장 심각하였는데(Angular Displacement), 이 영역에서 겪는 대인관계 문제의 심각도 또한 대인관계 문제에서 평균적으로 경험하는 심각도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은 아니었다(Amplitude). 즉, Figure 2에 제시된 대인관계 프로파일에서 볼 수 있듯이, 통제집단은 어떠한 대인관계 문제에서도 심각도가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격병리가 없는 일반 대학생은 대인관계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과 통제집단의 대인관계 프로파일 적합도가 낮게 나타난 이유를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인관계 프로파일 적합도는 Sin 그래프와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Supplementary material 1처럼 대인관계 문제가 뚜렷하게 심각한 영역과 심각도가 낮은 영역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수록 적합도 수치가 상승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두 집단은 Angular Displacement에서 평균 대비 상승폭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Amplitude .10 미만) Angular Displacement 이외에서도 그래프가 상승하여 대인관계 문제가 뚜렷하게 심각한 영역을 구별할 수 없었다. 특히, 통제집단은 0°-45° 사이와 270° 인근에서 그래프가 하락하였고, 하락폭도 유사한 수준이어서 대인관계 문제의 심각도가 가장 낮은 영역 또한 뚜렷하게 구별할 수 없었는데, 이런 이유로 통제집단의 대인관계 프로파일 적합도가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보다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의 Angular Displacement는 330.50°로 나타났는데, 이는 337.4°로 나타난 Zimmermann과 Wright (201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지만 122.75° (Cain et al., 2015), 115.6° (Williams & Simms, 2016)로 나타난 선행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다. 이는 연구 참가자의 차이 때문으로 고려된

다. 본 연구와 Zimmermann과 Wright (2017)의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반면, Cain 등(2015)과 Williams와 Simms (2016)의 연구는 각각 OCPD 환자와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즉, 연구 참가자의 강박성 성격장애 병리 수준의 차이가 Angular Displacement 수치에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대인관계 프로파일 적합도가 낮아 해석에 주의가 요구되지만, 연구 참가자의 강박성 성격장애 병리 수준에 따라 Angular Displacement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강박성 성격장애 성향이 높은 대학생은 친화적 복종(315°)과 관련된 대인관계 문제가 가장 심각한 반면, 강박성 성격장애 환자는 지배(90°) 또는 적대적 지배(135°)와 관련된 대인관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PC에서 친화적 복종이 적대적 지배와 대극을 이룬다는 점과 강박성 성격장애가 양가적인 대인관계 양상을 나타낸다는 여러 이론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을 지닌 대학생은 성격병리가 덜 심각하고 일반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상대적 지위가 낮아 친화적 복종과 관련된 대인관계 문제를 나타내는 반면, 강박성 성격장애 환자는 성격병리가 더 심각하여 상대방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상대방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지배 또는 적대적 지배와 관련된 대인관계 문제를 주로 나타내는(Cain et al., 2015; Williams & Simms, 2016)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강박성 성격장애가 수동적이고 자기-비판적인 강박사고형과 이와는 대조되는 대인관계에서 요구적이고 우월감을 드러내는 강박행동형을 아우른다(Leary, 1957)는 이론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강박성 성격장애 병리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 문제의 차이에 관한 해석만 제공할 뿐, 강박성 성격장애의 개인 내적인 대인관계 변동성에 관한 해석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셋째, 강박성 성격장애의 개인 내적인 대인관계 변동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들이 대인관계에서 나타내는 행동과 지각에서의 변동성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강박성 성격장애가 권력이나 지위를 바탕으로 대인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개인 내적 변동성이 대인관계를 맺는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가정하고 대상을 친구와 권위자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행동 변동성에 대한 반복측정 공분산분석 결과, 대상의 주효과는 권위 Flux와 Spin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대학생들은 행동 레퍼토리가 권위자보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더 다양함을 의미한다. 반면, 집단의 주효과는 모든 지표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대인관계를 맺는 대상을 세분화하지 않고 대인관계 전반에서의 행동 변동성을 비교하면,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이 대인관계에서 나타내는 개인 내적인 행동 변동성이 통제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의 개인 내적인 행동

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대상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행동 변동성에서 상호작용효과는 권위 Flux와 Spin에서 유의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권위 Flux와 Spin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권위자와의 관계에서는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이 통제집단에 비해 권위 Flux와 Spin이 유의하게 낮았다. 또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은 친구보다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권위 Flux와 Spin이 유의하게 낮았던 반면, 통제집단은 권위 Flux와 Spin에서 대상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이 친구보다 권위자를 대할 때 행동 레퍼토리의 다양성이 감소하여 경직된 행동을 보이며, 경직된 정도는 통제집단보다 더 심각함을 의미한다. 친화 Flux를 제외한 권위 Flux에서만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이 권위자에게 친화 차원(친화-적대)의 행동은 유연하게 할 수 있지만 권위 차원(지배-복종)의 행동에서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경직된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대인관계 문제 구조적 요약 결과와 통합적으로 해석하면,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은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친화적이고 복종적인 모습을 나타내며, 특히 권위자와의 관계에서는 권위 차원의 행동이 더 경직된 형태(예. 자기주장을 못하고 권위자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경향)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강박성 성격장애가 권위를 바탕으로 타인과 관계하며 상대가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 경직성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Millon et al., 2004)와 일치한다.

넷째, 지각 변동성에 대한 반복측정 공분산분석 결과, 대상의 주효과는 친화 Flux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대학생들은 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행동을 친화 또는 적대적으로 지각하는 유연성이 권위자보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더 높음을 의미한다. 반면, 집단의 주효과는 모든 지표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대인관계를 맺는 대상을 세분화하지 않고 대인관계 전반에서의 지각 변동성을 비교하면,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이 대인관계에서 나타내는 개인 내적인 지각 변동성이 통제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의 개인 내적인 지각 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대상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각 변동성에서 상호작용효과는 친화 Flux에서 유의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친화 Flux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권위자와의 관계에서는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이 통제집단에 비해 친화 Flux가 유의하게 낮았다. 또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은 친구보다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친화 Flux가 유의하게 낮았던 반면, 통제집단은 Flux에서 대상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이 친구보다 권위자를 대할 때 상대방의 행동을 친화적으로만 지각하거나 혹은 적대적으로만 지각하는 경직된 경향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경직된 정도는 통제집단보다 더 심각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Spin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친화 Flux의 하락이 지각 레퍼토리의 다양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이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경직된 행동을 나타내는 것과는 다르게 권위자의 행동을 지각하는 데는 큰 문제를 경험하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다. 혹은 이는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이 권위자의 행동을 친화 차원에서 경직되게 지각하고 권위 차원에서 유연하게 지각하지만, 성격 병리 특성으로 인해 권위자를 향한 행동은 지각한 내용과 독립적으로 나타남(즉, 권위 차원의 행동이 경직됨)을 시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반복측정 공분산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해석함에 있어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공변량으로 통제 한 결과와 통제하지 않은 결과를 비교하였다. 자기애성 성격장애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의 권위 차원의 행동 변동성이 대상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격 특성을 통제한 경우에는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이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권위 차원의 행동 변동성이 더 감소하여, 친구와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권위 차원의 행동 변동성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즉, 강박성 성격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경우보다 강박성 성격장애 특성만 지니고 있는 경우에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권위 차원의 행동 변동성이 더 낮아졌다. 이는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복종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강박성 성격장애의 고유한 특성임을 의미한다. 대조적으로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주도적, 착취적, 지배적인 대인관계를 나타내기(APA, 2013) 때문에, 자기애성 성격장애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의 복종적인 행동에 자기애성 성격장애 특성의 지배적인 행동이 더해져 권위 차원의 행동 변동성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두 성격장애 모두 지배와 관련된 문제를 가장 심하게 나타낸다는 선행연구(Cain et al., 2015; Pincus & Hopwood, 2012; Pincus & Wiggins, 1990; Williams & Simms, 2016)와 불일치하는데, 이는 앞서 기술했듯이 본 연구가 강박성 성격장애 환자가 아닌 경향군을 대상으로 수행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강박성 성격장애가 대인관계에서 나타내는 개인 내적 변동성에 관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Cain et al., 2015; Williams & Simms, 2016; Zimmermann & Wright, 2017)에서는 IPC를 바탕으로 강박성 성격장애의 주된 대인관계 문제만 파악했을 뿐, 강박성 성격장애가 나타내는 대인관계 양상의 핵심인 개인 내적 변동성 혹은 양가성을 측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대인관계 시나리오(Erickson et al., 2009)와 대인관계 격자(Moskowitz & Zuroff, 2005)를 활용하여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이 대인관계에서 나타내는 행동 및 지각에서의 변동성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의 행동 및 지각 변동성이 친구보다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더 낮았으며, 또한 이들의 행동 및 지각 변동성은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통제집단보다 더 낮았지만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이 대인관계에서 나타내는 개인 내적 변동성이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둘째, 본 연구는 강박성 성격장애 치료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강박성 성격장애는 대인관계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다른 성격장애와 달리 자신의 고통을 인식하여 자발적인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음(Sadock, Sadock, & Ruiz, 2015)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이들이 전형적인 대인관계 문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Salzer et al., 2008) 복잡한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Gurtman & Blakrishnan, 1998)하기에 사례를 구조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이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경직된 행동과 지각을 나타냈다는 점과 강박성 성격장애는 상대가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 경직성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Millon et al., 2004)를 고려하면, 강박성 성격장애의 대인관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행동을 다르게 지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유연성을 기르도록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은 상대방에게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며 복종하는 반면에 강박성 성격장애 환자는 상대방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상대방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모습을 주로 나타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박성 성격장애 병리 수준에 따라 치료 목표를 다르게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성격병리가 심하지 않은 환자는 자기주장을 향상시키고, 성격병리 수준이 높은 환자는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PDQ-4+ OCPD의 내적 합치도(.34)는 절대적인 수치로도 낮았고, NPD의 내적 합치도(.48)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아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PDQ-4+의 신뢰도를 확인한 선행 연구에서도 하위요인 중 OCPD의 내적 합치도가 가장 낮거나(.45, Fossati et al., 1998)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났다(.44, Kim et al., 2000). 또 OCPD를 측정하는 여러 도구를 비교한 연구(Samuel & Widiger, 2010)에서도 PDQ-4+의 내적 합치도와 문항-총점 간 상관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이를 볼 때, 본 연구에서 PDQ-4+ OCPD의 내적 합치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자료 수집 과정의 문제보다는 PDQ-4+ OCPD 도구 자체의 문제 때문으로 고려된다. 다만, 도구 자체의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선행연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 참가자의 차이 때문으로 고려된다. 상기 기술한 선행연구는 연구 참가자 전체(Fossati et al., 1998) 또는 일부(Kim et al., 2000)가 정신과 환자 또는 성격장애 환자였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Samuel & Widiger, 2010)에서도 PDQ-4+ OCPD 점수가 5점 이상인 참가자의 비율이 28.92%로 본 연구(14.16%)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chi^2(1, N=762)=18.70, p<.001$. 즉,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비해 높은 수준의 강박성 성격장애 특성을 가진 참가자의 비율이 적고, 참가자의 전반적인 성격병리 수준이 낮아 PDQ-4+ OCPD의 8문항에서 반응 일치 경향이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McCrae, Kurtz, Yamagata와 Terraciano (2010)는 성격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도구에서 내적 합치도가 타당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안정성(stability), 유전 가능성(heritability), 관찰자 간 일치도(cross-observer agreement)를 타당도 준거로 삼고, 여러 표본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세 가지 타당도 준거와 내적 합치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 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내적 합치도와 타당도 준거와의 상관은 대부분의 표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타당도 준거와의 상관은 모든 표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들은 NEO 성격검사로 분석을 실시하였지만 다른 성격검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것임을 제안하며, 자기보고식 성격검사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타당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하였다. McCrae 등(2010)의 주장과 함께 PDQ-4+가 DSM-IV 성격장애 진단기준을 토대로 개발(Kim et al., 2000)된 점을 고려하면, 낮은 내적 합치도가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 선정과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고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내적 합치도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OCPD를 선별할 때 Samuel과 Widiger (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내적 합치도와 문항-총점 간 상관의 가장 양호한 OCPD 척도(예, Wisconsin Personality Disorders Inventory-IV; Klein et al., 1993)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을 대상으로 수행되었

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유의해야 한다. 강박성 성격장애 환자는 지배와 관련된 대인관계 문제를 주로 보이기(Cain et al., 2015; Williams & Simms, 2016) 때문에, 대인관계 행동 및 지각 변동성에서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의 대인관계 변동성을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과 통제집단을 선정한 후 집단 간 차이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범주적 관점으로 성격을 평가하였다. 하지만 DSM-5 (APA, 2013)에서 성격장애에 대한 대안적 모델을 제안하면서 차원적 접근을 도입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는 대인관계 기능뿐만 아니라 성격 또한 차원적 관점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Author contributions statement

J Lee, graduate student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ollected and analyzed data, and led manuscript preparation. J Lim, lecturer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nalyzed data and assisted in manuscript preparation. M Chang, professor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ollected data and supervised the research process. All authors designed this study, provided critical feedback, participated in revision of the manuscript, and approved the final submission.

References

- Alden, L. E., Wiggins, J. S., & Pincus, A. L. (1990). Construction of circump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 521-536.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IV*.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Bender, D. S., Morey, L. C., & Skodol, A. E. (2011). Toward a model for assessing level of personality functioning in DSM-5, part I: a review of theory and method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3, 332-346.
- Benjamin, L. S. (1974).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Psychological Review*, 81, 392-425.
- Benjamin, L. S. (1996). *Interperson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personality disorders* (2nd ed). New York, NY, US: Guilford Press.
- Cain, N. M. (2011, March). *Interpersonal problem profile of the pathological obsessive-compulsive personality scale (POPS)*. Paper presented at the 2011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Personality Assessment, Boston, Massachusetts.
- Cain, N. M., Ansell, E. B., Simpson, H. B., & Pinto, A. (2015). Interpersonal functioning in obsessive-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7, 90-99.
- Carson, R. C. (1969). *Interaction concepts of personality*. Chicago, IL: Aldine.
- Eisen, J. L., Coles, M. E., Shea, M. T., Pagano, M. E., Stout, R. L., Yen, S., . . . Rasmussen, S. A. (2006). Clarifying the convergence between obsessive 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 criteria and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0, 294-305.
- Erickson, T. M., Newman, M. G., & Pincus, A. L. (2009). Predicting unpredictability: Do measures of interpersonal rigidity/flexibility and distress predict intraindividual variability in social perceptions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 893-912.
- Fenichel, O. (1945). *The psychoanalytic theory of neurosis*. New York, NY: Norton.
- Fossati, A., Maffei, C., Bagnato, M., Donati, D., Donini, M., Fiorilli, M., . . . Ansolli, M. (1998). Brief communication: Criterion validity of the Personality Diagnostic Questionnaire-4+(PDQ-4+) in a mixed psychiatric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2, 172-178.
- Gifford, R. (1991). Mapping nonverbal behavior on the interpersonal circ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79-288.
- Gurtman, M. B., & Balakrishnan, J. D. (1998). Circular measurement redux: The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interpersonal circle profile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5, 344-360.
- Gurtman, M. B., & Pincus, A. L. (2003). *The circumplex model: Methods and research applications*. In J. A. Schinka & W. F. Velicer (Eds.). *Handbook of psychology: Research methods in psychology* (Vol. 2, pp. 407-428). Hoboken, NJ: Wiley.
- Halmi, K. A., Tozzi, F., Thornton, L. M., Crow, S., Fichter, M. M., Kaplan, A. S., . . . Mitchell, J. E. (2005). The relation among perfectionism, obsessive-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 an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in individuals with eating disor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8, 371-374.
- Hong, S. H., Park, E. Y., Kim, Y. H., Kwon, J. H., Cho, Y. R., & Kim, Y. K. (2002). Short form of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s(KIIP-SC).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 923-940.
- Hopwood, C. J., Ansell, E. B., Pincus, A. L., Wright, A. G. C., Lukowitsky, M. R., & Roche, M. J. (2011). The circumplex structure of interpersonal sensitivities. *Journal of Personality*, 79, 707-740.
- Hopwood, C. J., Wright, A. G., Ansell, E. B., & Pincus, A. L. (2013). The interpersonal core of personality 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7, 270-295.
- Hunt, C., & Andrews, G. (1992). Measuring personality disorder:

- The use of self-report questionnaire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6, 125-133.
- Hyler, S. E. (1994). *Personality diagnostic questionnaire-4+ (PDQ-4+)*. New York, NY: New York State Psychiatric Institute.
- Kiesler, D. J. (1985). *The 1982 Interpersonal Circle: Acts version*. Unpublished manuscript.
- Kiesler, D. J. (1987). *Check List of Psychotherapy Transactions-Revised (CLOPT-R) and Check List of Interpersonal Transactions-Revised (CLOIT-R)*. Richmond, VA: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 Kim, D. I., Choi, M. R., & Cho, E. C. (2000). The preliminary study of reliability and validity on the Korean version of personality disorder questionnaire-4+(PDQ-4+).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9, 525-538.
- Kim, Y. H., & Hong, S. H. (1999). Standardization study of interpersonal assessment instruments: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and its circumplex scale. *Journal of the Sungkok Academic & Cultural Foundation*, 30, 537-594.
- Klein, M. H., Benjamin, L. S., Rosenfeld, R., Treece, C., Husted, J., & Greist, J. H. (1993). The Wisconsin personality disorders inventory: Development,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7, 285-303.
- Leary, T.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NY: Ronald Press.
- Lukowitsky, M. R., & Pincus, A. L. (2011). The pantheoretical nature of mental representations and their ability to predict interpersonal adjustment in a nonclinical sample. *Psychoanalytic Psychology*, 28, 48-74.
- Mardia, K. V. (1972). *Statistics of directional data*. New York, NY: Academic Press.
- Marissen, M. A., Deen, M. L., & Franken, I. H. (2012). Disturbed emotion recognition in patients with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Psychiatry Research*, 198, 269-273.
- McCrae, R. R., Kurtz, J. E., Yamagata, S., & Terracciano, A. (2011). Internal consistency, retest reliability, and their implications for personality scale valid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5, 28-50.
- McLemore, C. W., & Benjamin, L. S. (1979). Whatever happened to interpersonal diagnosis? A psychosocial alternative to DSM-III. *American Psychologist*, 34, 17.
- McWilliams, N. (2011). *Psychoanalytic diagnosis: Understanding personality structure in the clinical process*. New York, NY: Guilford Press.
- Millon, T. (1969). *Modern psychopathology: A biosocial approach to maladaptive learning and functioning*. Philadelphia, PA: Saunders.
- Millon, T. (1981). *Disorders of personality: DSM-III, Axis II*. New York, NY: Wiley-Interscience.
- Millon, T. (1999). *Personality-Guided Therapy*.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Inc.
- Millon, T., Grossman, S., Millon, C., Meagher, S., & Ramnath, R. (2004). *Personality disorders in modern life (2nd ed.)*. Hoboken, NJ, US: John Wiley & Sons Inc.
- Millon, T., & Grossman, S. D. (2005). *Personology: a theory based on evolutionary concepts*. In M. F. Lenzenweger & J. F. Clarkin (Eds.). *Major Theories of Personality Disorder (2nd ed.)*. (pp. 380).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Moskowitz, D. S., & Zuroff, D. C. (2005). Assessing interpersonal perceptions using the interpersonal grid. *Psychological Assessment*, 17, 218-230.
- Pincus, A. L. (2011). Some comments on nomology, diagnostic process,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the DSM-5 proposal for personality and personality disorders.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2, 41-53.
- Pincus, A. L., & Ansell, E. B. (2012). *Interpersonal theory of personality*. In I. B. Weiner, H. Tennen & J. Suls (Eds.). *Handbook of Psychology Vol. 5: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nd Ed., pp. 141-159). Hoboken, NJ: Wiley.
- Pincus, A. L., & Hopwood, C. J. (2012). *A contemporary interpersonal model of personality pathology and personality disorder*. In T. A. Widiger (Ed.), *The Oxford Handbook of Personality Disorders* (pp. 372-398). New York, NY, US: Oxford University Press.
- Pincus, A. L., & Wiggins, J. S. (1990). Interpersonal problems and conceptions of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4, 342-352.
- Pincus, A. L., & Wright, A. G. (2011). *Interpersonal diagnosis of psychopathology*. In L. M. Horowitz & S. Strack (Eds.), *Handbook of Interpersonal Psychology* (pp. 359-382).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Rosenwald, G. C. (1972). Effectiveness of defenses against anal impulse arousa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9, 292-298.
- Sadock, B. J., Sadock, V. A., & Ruiz, P. (2015). *Kaplan & Sadock's synopsis of psychiatry: Behavioral sciences/clinical psychiatry (11th ed.)*. Philadelphia, PA: Wolters Kluwer.
- Salzer, S., Pincus, A. L., Hoyer, J., Kreische, R., Leichsenring, F., & Leibling, E. (2008). Interpersonal subtypes within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0, 292-299.
- Samuel, D. B., & Widiger, T. A. (2010). A comparison of obsessive-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2, 232-240.
- Samuel, D. B., & Widiger, T. A. (2011). Conscientiousness and obsessive-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2, 161-174.
- Skodol, A. E., Bender, D. S., Morey, L. C., Clark, L. A., Oldham, J. M., Alarcon, R. D., . . . Siever, L. J. (2011). Personality disorder types proposed for DSM-5.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5, 136-169.

- Skodol, A. E., Clark, L. A., Bender, D. S., Krueger, R. F., Morey, L. C., Verheul, R., . . . Oldham, J. M. (2011). Proposed changes in personality and personality disorder assessment and diagnosis for DSM-5 Part I: Description and rationale.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2, 4-22.
- Sullivan, H. S. (1953a). *Conceptions of modern psychiatry*. New York, NY: Norton.
- Sullivan, H. S. (1953b).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Y: Norton.
- Villemarette-Pittman, N. R., Stanford, M. S., Greve, K. W., Houston, R. J., & Mathias, C. W. (2004). Obsessive—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 and behavioral disinhibition. *The Journal of Psychology*, 138, 5-22.
- Wiggins, J. S. (1991). *Agency and communion as conceptual coordinates for the understanding and measurement of interpersonal behavior*. In D. Cicchetti & W. M. Grove (Eds.), *Thinking clearly about psychology: Essays in honor of Paul E. Meehl*, Vol. 2.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pp. 89-113). Minneapolis, MN, U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Williams, T. F., & Simms, L. J. (2016). Personality disorder models and their coverage of interpersonal problems.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7, 15-27.
- Wright, A. G. C., Pincus, A. L., Conroy, D. E., & Hilsenroth, M. J. (2009). Integrating methods to optimize circumplex description and comparison of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 311-322.
- Wright, A. G. C., Pincus, A. L., Hopwood, C. J., Thomas, K. M., Markon, K. E., & Krueger, R. F. (2012). An interpersonal analysis of pathological personality traits in DSM-5. *Assessment*, 19, 263-275.
- Zimmermann, J., & Wright, A. G. C. (2017). Beyond description in interpersonal construct validation: methodological advances in the circumplex structural summary approach. *Assessment*, 24, 3-23.

국문초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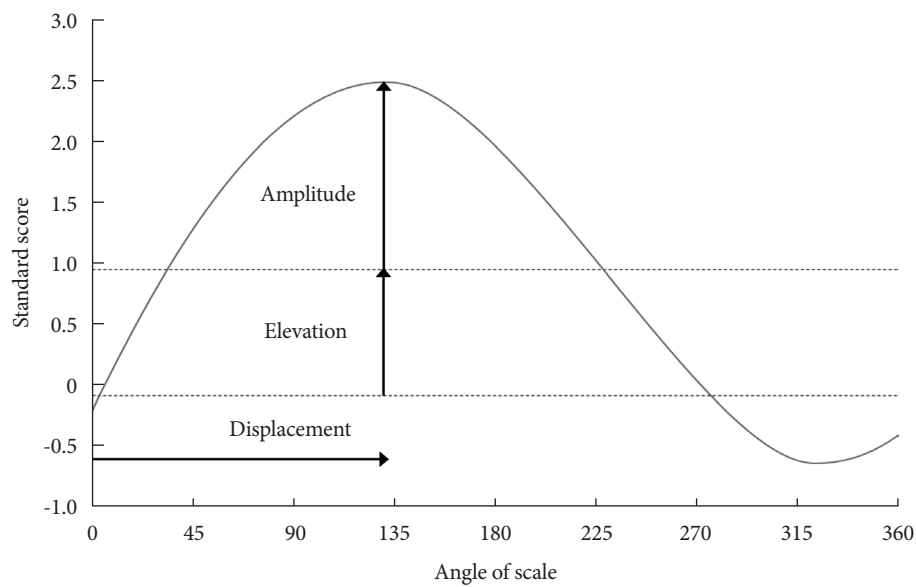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의 대인관계 문제 및 변동성: 대인관계 원형모델을 바탕으로

이지은·임종민·장문선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강박성 성격장애는 대인관계 통제 욕구로 인해 경직되고 완강한 대인관계 양상을 보이며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나타낸다(APA, 2013). 대인관계 기능이 성격병리를 이해하는데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강박성 성격장애의 대인관계 문제나 대인관계 경직성을 살핀 선행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권위(Agency)와 친화(Communion)라는 두 차원으로 대인관계 요소를 측정하는 대인관계 원형모델(Leary, 1957)을 바탕으로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의 주된 대인관계 문제와 대인관계 행동 및 사회적 지각에서의 변동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강박성 성격장애가 권위를 바탕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상(친구와 권위자)에 따라 행동 및 지각에서의 변동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였다. 또 강박성 성격장애가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자주 공병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기애성 성격특성을 공변인으로 통제했다. 연구 결과, 통제집단은 대상에 따른 행동과 지각 변동성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은 동료에 대한 때보다 권위자에 대한 때 행동의 범위가 줄어들었고, 특히 권위 차원에서 경직된 대인관계 행동 양상을 보였다. 아울러, 강박성 성격장애 경향군의 권위와 관련된 행동 변동성은 자기애성 성격특성을 통제했을 경우에 더 감소했는데, 이는 강박성 성격장애가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비해 권위 차원에서 더 경직된 행동 패턴을 보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강박성 성격장애군에 대한 상담 및 치료에서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강박성 성격장애, 대인관계 원형모델, 대인관계 문제, 개인내적 변동성



Supplementary material 1. *Structural Summary Method of IPC.*